



2 빅테크 간 파트너십,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 확산

⇒ EU는 디지털시장법(DMA) 시행 이후 더욱 강경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
- EU 당국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(6.24.), 이는 DMA 시행 후 특정 기업의 활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첫 사례

※ DMA(Digital Market Act)는 EU 집행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'게이트키퍼'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률(3.7. 시행)

- EU집행위원회는 DMA에 근거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
- 또한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 방식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
-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애플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'인앱결제' 외에 앱의 공식 웹사이트 등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
- 애플이 유럽에서 제3자 앱 장터를 허용했지만, 또 다른 명목의 수수료와 예외 조항으로 여전히 앱 개발자들의 수익을 과도하게 나눠 갖고 있다고 판단
- ※ 애플은 독자적인 폐쇄적 생태계를 운영하며 앱스토어를 통해 일부 인기 앱 매출의 30%를 수수료로 부과, 이에 앱 개발자들은 애플에서의 서비스 비용을 더 높게 책정
- ※ 이번 판단은 예비조사 결과로, 2025년 3월 25일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으며 성명을 통해 "지난 몇 달 동안 애플은 DMA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해 왔고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"고 답변
-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, 애플의 글로벌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%를 징수 가능

※ 2023년 기준 애플 연간 매출은 3,832억 9,000만 달러로, 최대 약 383억 달러의 벌금 가능

- 애플은 올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16 시리즈에 탑재하는 첫 생성형 AI 시스템 '애플 인텔리전스'의 적용을 EU 국가 판매 기기에는 보류하겠다는 입장 전달
- 애플이 DMA 지정 게이트키퍼 기업인 만큼 자사 서비스를 제3자와 호환시켜야 하는데, AI 기능까지 개방할 경우 보안 우려가 있다는 이유
- DMA의 호환성 요구는 애플 고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애플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
-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한 DMA 예비조사 결과,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의 '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(pay or consent)' 모델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발표(7.1.)
- ※ EU 집행위원회는 "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"며 "(메타 모델은)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"고 지적

-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서비스 ‘팀즈’를 워드·엑셀·파워포인트 등 사무용 SW에 일명 ‘끼워팔기’ 한 것도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

※ EU 당국은 사무용 SW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‘팀즈 끼워 팔기’를 시작했다고 판단

- 엔비디아에 대한 업계의 과도한 의존을 우려한 프랑스 반독점 경쟁 기관(Autorité de la concurrence)도 엔비디아를 반독점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대두

※ 반독점 경쟁기관은 AI 시장 및 경쟁 현황 관련 보고서 발표(6.28.), AI 가속에 필요한 GPU와 엔비디아 CUDA 칩 프로그래밍 SW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우려와 리스크 등 내용 포함

➔ EU 경쟁당국, ‘삼성전자-구글’·‘MS-오픈AI’ 파트너십 조사 가능성 시사

- EU 경쟁당국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삼성전자 일부 기기에 ‘제미니 나노’를 先 탑재한 구글과 삼성전자 간 계약·합의 내용 및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

※ 삼성전자는 올 초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구글 제미니 나노를 기본 탑재, 이는 삼성전자의 다른 AI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고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발생

- EU 경쟁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

-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02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EU 기업인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

- MS-오픈AI 파트너십에 대해 일방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에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언급

※ 파트너십 :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130억 달러를 투자, 오픈AI 지분 49%를 보유 추정

〈 빅테크 간 파트너십 등에 대한 최근 제재·조사 현황 〉

<p>Samsung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갤럭시 S24 시리즈 등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'제미니 나노' 탑재와 관련 정보 요청, 조사 검토 시사 	<p>Microsoft OpenAI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S, 총 130억 달러 투자해 오픈AI 지분 49% 보유. 파트너십을 통해 일방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 등 추가 조사 시사 • 사무용 SW에 팀즈 '끼워팔기'로 DMA 위반 	<p>Apple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비 조사 결과, 앱스토어 운영 방식 (인앱결제) DMA 위반 결론 • '애플 인텔리전스' 탑재한 아이폰16시리즈 EU내 판매 제한 가능 	<p>Meta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페이스북-인스타그램의 '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(pay or consent)' 모델 DMA 위반 판결
<p>NVIDIA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랑스 경쟁당국, 엔비디아 쿼다(CUDA) 칩 프로그래밍 SW에 대한 의존도 우려하며 반독점 혐의로 기소 가능성 제기 	<p>Apple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소송 시작(3.16) 	<p>Google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 종결(5.3), 금년 하반기 선고 결과 발표 예정 	

출처 : IITP 정리

출처 : 조선일보 외(2024.7.)
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tech_it/2024/07/02/P7J4BUXOEBCCBBM2ZMDFGAFRMZQ/

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4_3582

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40701_0002794320